인도-파키스탄 분쟁 영향

복합 분쟁은 잠재적 뇌관 요인

더 많은 리포트 보기

KB증권

리서치본부장 김동원
jeff.kim@kbfg.com
아시아주식 Analyst 김승민
seungmin_kim@kbfg.com

2025년 5월 8일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2가지 시나리오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에서 인도 관광객 등 26명이 사망하는 총기 테러가 발생했다. 인도 정부가 테러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면서 양국 간 소규모 교전이 지속되었고, 7일 오전 인도의 미사일 폭격을 시작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현 상황에서 인도-파키스탄 분쟁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 전개를 예상한다.

시나리오 1. 단기적 국지전: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 UN 등 국제기구의 신속한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다. 과거 양국 간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국지전 가능성이 높다. 제 3국의 적극적 중재가 이뤄질 경우 분쟁은 비교적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나리오 2. 국지전 장기화: 인더스강 수자원 공급 중단과 종교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민족 및 종교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다. 현 분쟁의 발단이 종교적 충돌에서 비롯되었고, 인도가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조약을 65년 만에 효력을 중단해 인더스강을 생명줄로 인식하고 있는 파키스탄 (농업: 전체 물 소비 94%, GDP 23% 차지)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지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인도 증시: 지정학 리스크 확대 가능성 제한적 vs. 복합적 분쟁은 잠재적 뇌관 요인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2019년 폴와마 테러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 내 자살폭탄테러로 경찰 40여명 사망) 당시에도 인도 Nifty50 지수는 최대 -2.6%까지 하락했으나, 긴장 완화와 함께 빠르게 회복했다. 시나리오 1이 현실화될 경우, 증시는 단기적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신속하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시나리오 2와 같이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인도 증시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회복 속도도 더딜 것으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역사적 선례를 고려할 때 분쟁은 국지전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화될 경우 인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심화돼 복합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증시에 잠재적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상황 악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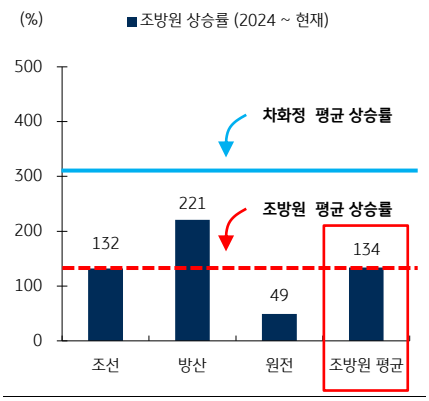
한국 증시: 자동차, 가전, 스마트 폰 간접 영향권, 최선호 업종은 조선, 방산, 원전

2024년 기준 인도 매출비중 및 매출액 높은 순서는 현대차 (6.3%, 11.1조원), 삼성전자 (5.7%, 17.0조원), 기아 (4.8%, 5.1조원), LG전자 (4.3%, 3.8조원) 등으로 자동차, 가전, 스마트 폰 산업이 인도 분쟁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위 기업들은 현재 매출과 이익 비중이 높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인도 시장이 신흥국 수출의 전초 기지로 인식되며 생산능력이 증설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도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미래 성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B증권은 인도 분쟁의 지정학 리스크 발생과 미국의 관세 정책 변동성 등의 불확실성 확대로 조 · 방 · 원 (조선 / 방산 / 원전)을 최선호 업종으로 제시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원하는 대표적 산업인 동시에 관세 불확실성 안전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최선호주로는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제시한다.

인도 - 파키스탄 접경 지역

자료: 미국 CSIS, KB증권

수익률: 차화정 305% vs. 조방원 134%



자료: FnGuide,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삼성전자]의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위탁 증권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기아]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 입니다.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채권자 채무자인 법인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